



강진 김명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 발굴과 해소로 공동체 활성화 도모

광양시는 '2019년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주민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 해소해 나가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비로 1억 1천만 원을 확보하고, 사업공모에 들어갔다. 공모 분야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규모사업', △소규모 사업을 거친 마을로서 마을공동체 활

성화를 위한 '중규모사업' 총 2개 분야다. 공모사업 대상은 마을의 지원 발굴, 주민의 복지증진, 환경개선, 문화 발굴, 안전, 교육 등 마을 발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다.

신청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5인 이상 마을공동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39개소에 167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견제 투자일자리담당관은 "광양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컨설팅 지원 등 마을의 성장 발전을 도울 계획이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 상호간 협력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지역의 다양성을 살려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광양시청 투자일자리담당관 ☎(061-797-19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황경석 기자

제14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개최



4월 28일 보성공설운동장

'제14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가 오는 4월 28일 보성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보성군마라톤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과 군민 등 5,000여 명이 참가하여 힘찬 레이스를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회코스는 대한육상연맹 공인 코스로 전 구간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개인기록 단축에 도전하는 마라톤 마니아들로부터 각광 받고 있다. 참가비는 각각 5km 1만원, 10km·하프·풀 3만원, 마니아 풀·하프·10km 코스는 2만원으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는다. 보성녹차마라톤대회는 봄의 초원에 실시되어 맑고 푸른 보성강변과 초록으로 물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을 달리며 온몸으로 봄을 만끽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품 추첨, 녹차시음장, 특산물판매장, 먹거리 부스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에게 즐거움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대회 관계자는 "지역 대표 특산품을 기념품으로 지급하고, 아름다운 마라톤 코스를 가꿔 다른 지역 마라톤대회와 차별화된 명품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4월 12일까지 보성군 홈페이지(<http://www.bosong.go.kr>) 및 팩스(061-371-1201), 이메일(dsbj@hanmail.net)로 할 수 있고, 대회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061-850-5962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안구일 기자

순천시 '시민과의 대화' 낙안면서 시작



순천시는 '2019년 시민과의 대화'를 최근 낙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시작을 알렸다.

최초 민간인 면장이 임명된 화재를 모은 낙안면에서 첫 시작을 알리며, 이후 순천시장은 2019년 시정운영 계획을 약 10분 동안 직접 낙안

면 주민에게 설명해 민선7기 순천시 운영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참석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신길호 낙안면장이 순천시장과 주민들에게 낙안면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 약 30분간 보고를 이어갔다. 신 면장은 보고에서 낙안면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고 귀농귀촌 학교 설립, 낙안면 주식회사 설립 등을 향후 펼쳐 나가고자 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신길호 낙안면장은 지난달 11일에 낙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에게 낙안면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14일부터는 매일 직접 마을을 찾아가 10년 후 마을의 미래를 생각하며 토론을 하며 낙안면민과 소통행정을 펼쳤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농정혁신으로 농사 활력 가져와

순천시는 농촌과 도시가 통합된 도농복합 도시로 농업은 도시의 발전과 생태도시를 지킬 수 있는 핵심이다.

시는 올해 농사짓는 사람이 만족하는 농정혁신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정혁신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농업인 소득창출과 농업인 모두가 행복해 하는 농정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순천시는 농정 혁신을 위해 현장에 답이 있음을 인식하고 농업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갈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농업인,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순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를 2월 공식 출범한다. 농정 상실 협의체는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총체적 자문과 현안을 논의하여 순천종합발전 계획

을 수립하고 농업인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농작업 효율성을 증대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인이 원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맞춤형 지원 시스템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농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농업인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미래농업 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농업정보를 나눌 수 있는 특 나뭇방 운영, 순천 희망 농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도 개최한다.

발효산업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된 승주읍은 순천시와 통합으로 슬러브 된 곳이다. 지난해 국비 6억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타당성 등 순천형 귀농·귀촌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우리쌀, 김치류, 장류 등 해당 산업이 집적화 될 것으로 2020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한다.

시는 신대지구에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을 건립하기 위해 올해 기반을 마련한다. 상반기 행정절차와 시설계획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첫 삽을 뜰 예정이다.

로컬푸드 3호점이 개장하면 3만 명의 신대지역 소비자와 100여 명의 지역 농가를 잇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장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조직계관으로 귀농·귀촌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귀농인 농지인대로와 주택 구입, 리모델링 지원,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 등 순천형 귀농·귀촌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 시행

광양시는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건강권 보장 위해

생리대를 최대 8년(96개월)동안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월 1만 500원씩 지원되며, 지원방식이 바우처로 변경돼 개인 기호에 맞는 위생용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가맹점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에 해당되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영광군, 찾아가는 인구교실 운영 업무협약 체결



영광군은 지난 7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의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본부장 윤명심)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영광군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저출산 극복, 군민 인식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을 운영하고 영광군의 인구늘리기 시책과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군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의 유아동, 초·중·고등학생, 청년, 기관 사회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3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4월부터 본격적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

이다. 인구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인구 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350-5257)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준성 군수는 "인구문제는 단기만에 해결할 수 없는 경직적인 특성이 있으며 장기적 시야가 필요한 만큼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인구정책 발굴과 함께 각계각층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총대 사안 관여기관 선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점검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